

중전기, 상반기 영업실적 큰 폭으로 증가세

12월결산 상장기업들과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올 상반기 10조4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LG전선, 대한전선, 일진 등 전기계 업체들도 경기호전과 매출액 증가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기회복과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과거 최대치 7,867억원을 갱신한 1조 1,43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LG전선 627억원, 대한전선 343억원, 일진은 57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12월 결산 전기계 상장기업 상반기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 회 사 명 | 매 출 액 | | 순 이 익 | | 주당순이익 (원) | 부채비율 |
|-----------------|--------|-------|--------|-------|--------------|---------|
| | 2000 상 | 증 감 률 | 2000 상 | 증 감 률 | | |
| 계 양 전 기 | 574 | 17.5 | 50 | 7.4 | 1,520 | 32.4 |
| 광 명 전 기 | 73 | ▽59.7 | ▽6 | 적전 | ▽634 | 잠식 |
| 극 동 전 선 | 621 | 58.9 | 33 | 23.7 | 1,406 | 76.9 |
| 금 호 전 기 | 308 | ▽7.9 | 3 | 흑전 | 60 | 87.9 |
| 대 한 전 선 | 6,254 | ▽9.5 | 343 | 184.2 | 2,141 | 135.9 |
| 동 양 에 레 베 이 터 | 814 | 7.2 | 27 | ▽2.5 | 768 | 161.9 |
| 로 케 트 전 기 | 357 | ▽18 | 3 | 흑전 | 66 | 290.6 |
| 삼 성 전 기 | 20,379 | 56 | 1,953 | 361.8 | 2,530 | 120.3 |
| 삼 화 전 기 | 661 | 18.5 | 23 | 흑전 | 1,771 | 169.1 |
| 삼 화 콘 텐 서 공 업 | 523 | 45.4 | 33 | 627.1 | 3,690 | 165 |
| 선 도 전 기 | 175 | ▽5.3 | 8 | ▽75.9 | 420 | 23.9 |
| 선 진 금 속 | 1,003 | 21.5 | ▽23 | 적전 | ▽493 | 잠식 |
| 수 신 중 공 업 | 245 | 7.8 | ▽29 | 적전 | ▽332 | 잠식 |
| L G 전 선 | 9,646 | 3.6 | 627 | 10.7 | 2,069 | 190.9 |
| 오 리 온 전 기 | 4,501 | ▽12.4 | ▽1,173 | 적전 | ▽2,833 | 1,080.2 |
| 이 수 화 학 | 2,808 | 25 | 136 | ▽37.1 | 1,443 | 84.9 |
| 일 진 전 기 | 2,108 | 98.3 | 57 | 31 | 1,195 | 129.6 |
| 일 진 전 기 공 업 | 372 | ▽21.7 | 37 | ▽40.5 | 810 | 164.5 |
| 진 로 산 업 | 1,089 | 24.7 | ▽6 | 적축 | ▽101 | 3,331.6 |
| 한 국 전 기 초 자 | 3,365 | 32.7 | 768 | 166.3 | 9,509 | 49.6 |
| 한 국 전 기 통 신 공 사 | 50,936 | 8.5 | 5,962 | 463.9 | 1,912 | 72.6 |
| 한 국 전 력 공 사 | 84,620 | 20.6 | 11,434 | 45.3 | 1,789 | 100.6 |
| 회 성 전 선 | 1,410 | 15.3 | 41 | 58.7 | 1,045 | 98.2 |

주) 흑전=흑자전환, 적전=적자전환, 적축=적자축소, 적확=적자확대, 잠식=자본잠식



특히 회성전선은 2,200%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나타내 216개 거래소 상장기업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에 광명전기, 수산중공업, 오리온전기, 대

정기계공업은 적자로 전환됐으며, 광림특장차와 삼화전기는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KDN,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 시연

소규모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이 오는 2001년 까지 한전의 전국배전 사업소에 설치, 완료될 전망이다.

한전KDN은 최근 성수동 공장에서 한전 지사 및 한전KDN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하고 9월말까지 납품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형 소규모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은 올 연말쯤 상용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소규모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은 산업용 PC를 이용해 배전선로에 설치된 개폐장치를 원격지에서

자동으로 제어, 감시, 계측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개발된 '2000년형 소규모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은 '99년형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추가했다.

한전KDN은 '2000년형 소규모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을 9월말까지 생산완료해 납품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98년 17개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배전선로 자동화 시스템을 '99년 전국 66개 지점으로 확대해 운전 중에 있으며 오는 2001년까지 전국 배전사업소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전, 인천국제공항 지중 송전케이블 공사 '완공'

한국전력이 인천국제공항 지중 송전케이블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력공급에 들어갔다.

한전 송변전사업단(단장: 정태호)은 '97년 1월부터 3년6개월동안 총 1천500억원(전력구 공사비 포함)을 투입, 345kV 서인천변전소와 154kV 경서변전소에서 154kV 영종변전소까지 각각 1회선씩을 연결하는 총길이 36.7km의 지중 송전선로를 건설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영종1변전소(경서~영종)에 전력을 공급한데 이어 영종2변전소(서인천~영종)의 가압에 들어갔다.

한전은 이번에 선로가압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이중 전원'을 확보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하수종말처리장, 배후 업무지원단지 등 5개 배전선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전은 당초 준공 목표인 올해 12월보다 약 5개월을 앞당겨 이번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3월 개항을 앞두고 충분한 시운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차량통행과 외부 온도변화에 의한 교량의 진동 및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신축흡수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 연육교 교량 22개소에 설치함으로써 송전의 신뢰성을 높였다.

한전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해저케이블 공사대신 연육교 교량 내부에 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비를 크게 줄이고 인천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주변의 경관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전기공, 인도네시아 PLN PJB-1과 사업제휴

한전기공(대표 : 김형국)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발전정비시장에 진출한다. 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본사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전회사 PLN PJB-1의 피다우스 아크말(Firdaus Akmal) 사장 일행과 사업협력 제휴약정서(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의 발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양사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기공과 제휴 약정을 체결한 PLN PJB-1은 지난 '95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자바-발리 지역 최대의 발전회사로 수랄라야(Suralaya), 발리(Bali) 등 산하 8개 발전소에서 이 지역 전력수요의 50%가 넘는 총 9,094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PLN PJB-1은 정비 전담부서인 MSBU(Maintenance Service Business Unit)를 별도로 독립시켜 한전기공과 같은 정비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전기공 측에 기술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전기공 관계자는 "PLN PJB-1은 선진 외국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발전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90% 이상 기술 자립을 이룩한 우리나라 정비기술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PLN PJB-1은 앞으로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열·표면처리 기술지원센터 설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시화에 열처리 및 표면처리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열처리·표면처리기술은 부품소재공업의 근간이

되는 기반기술분야 중 제품의 최종 물성을 결정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그간 타 분야와는 달리 구심체가 없어 산발적,



지엽적 연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개발 결과의 보급률 저조 등 공업기반의 허약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기원은 산업자원부가 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던 장비를 생기원에 이관함에 따라 이번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생기원은 이번 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 "최초 중기센터 내 열처리·표면처리 연구팀으로 발족했

다가 내년까지 필요장비 구입 등 기본적 연구환경을 조성한 후 2003년에는 송도 테크노파크로 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열처리·표면처리 기술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경우, 2004년경에는 국내 열처리·표면처리기술 R&D 시장의 1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세계최초 '인터넷 전력부하제어' 성공

에너지관리공단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부하를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김홍경)은 '전력직접부하제어시스템 시연회'에서 공공건물 5개소, 산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력부하에 대한 직접부하제어 시스템 및 다양한 부하제어 방식을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인터넷을 통한 전력직접부하제어 시스템은 실시간 전력 상황 모니터링 및 부하제어의 자동화를 가능케 하며, 이를 국가적인 인프라로 구축할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소비제어가 가능해져 최대 전력수요 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거리통신망(LAN)이 설치된 곳은 이를 토대로 직접부하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직접부하제어의 도입으로 전력회사는 발전소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하관리의 참여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Win-Win 효과가 있다"며 "1,000kW이상 수용가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약 200MW 이상의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추진 전망이 밝다"고 예상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존의 부하관리는 전기요금 제도의 활용 및 절전홍보 등 간접부하관리에서 원격제어에어컨 보급제도 도입 등 직접부하제어 시스템의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 발전소 추가 건설비용 경감 및 입지난 해소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부하제어란 여름철 최대 전력부하 억제는 물론 전력공급 지장시 전력예비를 확보를 위해 전력회사와 소비자간 부하제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회사에서 직접 소비자들의 전력부하를 제어해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시연회의 성공적인 결과는 국내에 선진수요관리 시스템인 직접부하제어의 도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전기분야 외국인투자 소극적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부분은 전수면에서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미국계 금융기관인 메릴린치가 발표한 '국제 투자등급 시스템' 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2개국을 포함한 35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세계 13번째 투자유망국가로 평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전기업계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실적을 보면 IMF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서 전체적인 투자실적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기·전자부분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1백70건 14억8천2백만불의 투자를 유치,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건 21억6천8백만불보다 건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금액 투자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는 전기·전자부분의 투자가 다른 부분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실적을 보면 지난 8월말 현재 2천8백10건 93억6천6백만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백97건 77억7천4백만불보다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일본 및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1백80% 이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48억2천7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35.1%의 증가를 보였으며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에 비해 전체투자의 절반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등 신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기존 법인의 구주취득을 통한 진출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5백만불 이하의 중소규모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표준협회, 국제규격 정보 제공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국제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협회는 현재 국제규격(ISO, IEC 등)과 국가규격(JIS, ANSI, BS, DIN, NF 등)을 전담

보급하고 있으며 단체규격(ASTM, ASME, IEEE, NEMA, API, UL, SAE 등)과 정부간행물(MIL, FS, CFR 등)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규격에 대한 추록 예약 공급 서비스(Standing order Service)도 제공하고 있다.

즉 규격의 제·개정시 자동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신청하면 별도의 주문 없이 UPDATING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사 발행의 CD-ROM 및 각 표준화 단체에서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CD-ROM을 보급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규격을 중심으로 104개 기관 14만여종의 규격을 보유, 고객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SO(12000여종), IEC(5100여종), JIS(9600여종), ANSI(1400여종), BS(26300여종), DIN(35000여종), NF(22700여종), ASTM(10800여종), ASME(1900여종), IEEE(900여종) 등 10개 단체 14만여종의 규격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규격단체별, 번호별, 일자별, 분야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규격소장 여부 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 '북한표준연구소' 설치

남북한 산업표준 통합 작업을 담당할 민간 차원 '북한표준연구소'가 서울에 설치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여의도 본사에서 이승배 표준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보, 주덕영 기술표준원장 등 정부 및 학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표준연구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립된 북한표준연구소는 앞으로 남북한 통일화를 위한 기초연구, 산업표준 비교 및 통합화 방안연구, 형식승인·수입검사 및 품질인증제도 협력방안 연구, 북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교육 프로그램개발, 북한표준, 자료의 입수·분석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및 미국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은 남한의 표준체계와 중국 러시아 체계를 따른 북한표준을 통일시키려면 200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현재 본 연구소에는 북한표준을 수집해 연구할 상근인력 4명이 확보된 상태며 외부전문가 16명도 여기에 합세할 계획이다.

산업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설계도면, 성분함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의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북경협을 진행하고 있는 남한 기업의 경우 생산설비와 원재료, 심지어 발전기까지 남한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북한의 설비와 원재료가 남한 표준과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산업표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북한의 원재료와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설비를 이용하는데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의 경우도 선로체계 등과 같은 표준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도로, 항만, 전력, 건설 등 각 분야에서 표준통일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북한도 국제 ISO 규격에 부합하는 표준들이 있으며 이 같은 표준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준이 없거나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양측이 수렴 통합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표준협회 측은 무엇보다 북한의 표준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표준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표준은 국정원의 도움으로 확보한 '85년 전후의 북한표준 889종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표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업체를 통한 표준자료 확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개별업체가 북한표준을 공개했다가 대북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 측은 남북한 표준통합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광섬유 수요 · 시설투자 폭발 2005년까지 연평균 30% 성장 전망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IT) 산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섬유를 비롯한 광케이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설비투자도 빠르게 팽창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광관련 시장 조사기관인 KMI는 '광섬유, 광케이블의 세계시장 동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광섬유의 공급부족은 최소한 200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KMI는 또 이러한 광섬유 부족상태로 세계 메이커들은 생산능력 확대에 올해 총 26억달러를 쏟아붓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세계 광섬유 생산능력은 2001년에는 1억5,200만fkm로, 지난 '99년 7,700만fkm 규모 보다 97% 정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케이블 부문도 지난 '98년의 4,590만 fkm에서 지난해 38%가 증가된 6,330만fkm

로, 올해는 시장규모가 43%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적어도 '99년을 기준으로 2005년까지는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광케이블 수요확대 요인으로는 특히 북미에서 통신사업자 및 민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지속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는게 축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Qwest, Williams, Level 3, Broadwing 등의 정거리전화 사업자들의 사업망 확장은 광케이블 수요 폭발요인 중 대표주자로 지목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전유럽을 상대로 하는 Pan-European 통신사업자들인 COLT, KPN Qwest, Global Crossing, Viatel, Telia, Worldcom 등이 450만fkm의 통신망을 확장한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다 갈수록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망구축에 '다심 영분산 광섬유(NZDSF 고주파에서 분산이 0

에 가까운 광섬유'를 사용하는 추세여서 공급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례로 지난 '96년에는 통신망 구축에 사용된 NZDSF가 60만fkm에 불과했던 반면 '99년에는 1,130만fkm로 늘어났다는 분석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KMI는 논문에서 광섬유의 공급부족으로 몇가지 요인을 들추고 있다.

주요인으로는 우선 인터넷 사용의 폭증과 함께 미주, 범유럽적 통신사업자들의 등장과 경쟁적인 망구축 투자를 들고 있다.

또 광케이블 수요의 다심화 추세, 고비트율 추세, 싱글모드 광섬유의 생산증가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정보통신 시장에 폭넓은 수요가 계속됨에 따라 광섬유 시장가격도 20% 가까이 상승했다. 다심 영분산 광섬유인 NZDSF도 1,250만fkm로, 시장점유율로 볼 때 20%나 뛰었다.

싱글모드 광섬유가격도 '97년 중반에 다소 하락 기미를 보였으나 '99년말에 들어 안정을 찾은데다 올해 이후 2002년까지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KMI는 올해 광섬유 투자부문에 26억달러와 함께 시장수요 성장으로 미뤄 2003~2004년까지 최소한 37억달러가 투자되면 수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분간 광섬유, 광케이블 공급부족사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컷아웃스위치·고장구간자동개폐기' 中企 고유업종서 해제

컷아웃스위치(25kV급)와 고장구간자동개폐기(25.8kV, 400A, 15kV급)가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9월 1일부로 해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8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중 컷아웃스위치(25kV급)와 고장구간자동개폐기(25.8kV, 400A, 15kV급) 등 43개 업종을 해제하고 2개 업종은 일부만 해제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해제되는 업종에 대해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대기업 참여시 기술과 품질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참

여한 중소기업체가 극소수로 독과점적 지위에 있거나 시장규모가 협소한 업종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품목중 전기관련품목은 컷아웃스위치와 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 비롯, 플러그 부착 코오드, 트랜스포머(AC/AC 송압 및 강압용으로 권선된 상태의 것), '플러그 및 잭(3극수 이하의 것), 철심코어(전자기기용 변성기용), 박용전선(조선용기자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정비되지 않은 45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남북한, 전기용어 표준화 시급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분단 50년간 이질화되어 있는 산업표준화 작업의 통일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분야와 관련한 남북의 산업규격은 분류현황이나 전기기호 및 기술용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남북 경제교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표준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전기 관련분야 KS규격은 1,000여종이나, 북한은 1,308종으로 양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용어에 대한 차이도 심각해 외래어 표현의 경우 Δ electron tube를 남한은 '전자관' 북한은 '이온기구의 관구'로 Δ gate of jack을 남한은 '잭의 입구' 북한은 '접속구 토시'로 부르는 등 이질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업표준의 문제가 작업은 혼선을 불러와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고 원전과 같은 정밀분야의 경우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경협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경우 남북간의 작업시방, 기술도면 교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남북간 기술용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안전사고 및 불량률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과 북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에

있어서도 계통의 상이성과 질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북한 전력 수준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력운용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기계통의 표준화 작업도 서로 달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과 북은 전력계통에 있어 똑같은 60Hz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용되는 전력은 북한이 50Hz로 남한의 60Hz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력이 '70년대를 거치며 수급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전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전선의 용량 차이로 북에 직접 송전할 용량 차이로 북에 직접 송전할 경우 과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송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개성이나 특정 공단지역에 송전을 하려면 북에 새로이 송전선을 설치해야만 남한의 전기가 북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의 송전전압 차이도 시급히 통일해야 할 문제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의 전력은 154kV와 345kV인데 반해 북은 110kV와 220kV이다.

분단 이후 우리가 미국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은 구소련과 구동독의 방식을 사용해 온 결과다. 물론 이러한 전압의 차이는 변압기를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표준화 작업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북측이 KEDO가 있는 나진 선봉 등 공업단지내에 새로 설치하려는 송전선의 전압을 500kV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345kV를 주장하고 있어 이의 통일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북은 계속 550kV를 주장할 것이고 결국 일본기업이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